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순진이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가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201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홍민주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가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순진이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홍민주

인 준 서

홍민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11월

심사위원장.....(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가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소재의 M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20명으로, 실험집단 10명과 통제집단 10명으로 구분하여 무선배치하였다.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는 2016년 8월 16일부터 9월 27일까지 각 회기 당 45분씩 주 2회, 총 12회기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요, 주제곡, 클래식 연주곡 등 청소년에게 친숙한 음악을 바탕으로 선율 연주 및 화음 연주, 2성부와 3성부 앙상블 연주를 포함하여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 활동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의 시행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고, 음악치료 활동의 시행 후 동일한 방법으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사후 검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에서 빈도 분석, Mann-Whitney U 검정, 순위 공변량분석(Ranked ANCOVA), Wilcoxon 대응표본 부호순위검정(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가 실시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인 총체적, 사회적, 가정적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대인관계의 하위영역인 냉담, 사회적 억제, 자기중심성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 연구는 리듬과 선율, 화성을 기반으로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 활동을 구성하고 시행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향상에 유의한 효과를 검증하였다. 아울러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가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가능성을 높이고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치료적 중재로 기능함을 밝혔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문제	6
3. 용어정의	7
II. 이론적 배경	10
1. 다문화 청소년	10
1) 다문화 청소년의 개념 및 현황	10
2)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	12
3)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14
4) 다문화 청소년의 대인관계	16
2. 다문화 청소년의 음악	18
1) 청소년기 음악의 활용	18
2)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음악치료	20
3.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	21
1) 합주의 치료적 특성	21
2)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	23

Ⅲ. 연구방법	26
1. 연구대상	26
2. 연구설계	28
3. 측정도구	28
4. 연구절차	31
1) 사전 연구 절차	31
2) 사전검사	31
3) 실험	31
4) 사후검사	32
5.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 활동	32
6. 자료분석	41
Ⅳ. 연구결과	43
1.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가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43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동질성 검정	43
2) 자아존중감 전체	44
3) 자아존중감 하위요인	45
2.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가 다문화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48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대인관계에 대한 동질성 검정	48
2) 대인관계 전체	49
3) 대인관계 하위요인	50

V. 결론	55
1. 결론 및 논의	55
2. 제언	58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표 목 차

<표 II-1> 다문화가정 학생 수 현황.....	11
<표 II-2> 연도별 전체 청소년 대비 다문화 청소년 비율.....	12
<표 III-1> 다문화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27
<표 III-2> 전후 검사 통제집단 설계.....	28
<표 III-3> 자아존중감 검사의 하위요인별 문항.....	29
<표 III-4> 대인관계 검사의 하위요인별 문항.....	30
<표 III-5>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 활동의 회기별 목표 구성.....	33
<표 III-6>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 활동 방법 및 치료적 논거.....	35
<표 III-7>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 활동의 사용음악 및 치료적 논거..	38
<표 IV-1> 자아존중감 사전 검사에 대한 동질성 검정.....	43
<표 IV-2> 자아존중감 전체점수 순위 잔차의 평균과 표준편차.....	44
<표 IV-3> 자아존중감에 대한 순위 공변량분석.....	44
<표 IV-4> 자아존중감 Wilcoxon 대응표본 부호순위검정.....	45
<표 IV-5> 자아존중감 하위요인 순위 잔차의 평균과 표준편차.....	45
<표 IV-6>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에 대한 순위 공변량분석.....	46
<표 IV-7> 자아존중감 하위요인 Wilcoxon 대응표본 부호순위검정.....	47
<표 IV-8> 대인관계 사전 검사에 대한 동질성 검정.....	48
<표 IV-9> 대인관계 전체점수 순위 잔차의 평균과 표준편차.....	49
<표 IV-10> 대인관계에 대한 순위 공변량분석.....	49
<표 IV-11> 대인관계 Wilcoxon 대응표본 부호순위검정.....	50
<표 IV-12> 대인관계 하위요인 순위 잔차의 평균과 표준편차.....	50
<표 IV-13> 대인관계 하위요인에 대한 순위 공변량분석.....	51
<표 IV-14> 대인관계 하위요인 Wilcoxon 대응표본 부호순위검정.....	5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 사회는 국제적 지위 향상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국가 간 교류 활성화로 인하여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다(성한나, 2016). 이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자 유입의 가속화 현상과 함께 다문화가정의 증가를 야기시켰으며, 세계화로 인한 경제 발달과 동시에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 현상이 발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황재섭, 2011).

다문화가정은 외국인 근로자 가정과 국제결혼 가정, 새터민 가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정지윤, 2011). 이 중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 인구는 2012년 약 150만 명, 2014년 약 180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14년 126만 명, 2015년 138만 명으로 전년 대비 9.4%나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통계청, 2016).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겪는 가치관과 생활방식, 소외감이나 차별 등에서 오는 부적응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권혁민, 2012). 외국인 근로자는 사회적으로 일터에서의 부적절한 대우와 인종차별로 인해 문화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천정훈, 2005), 심리적으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우울, 불안, 적개심, 강박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Borrayo & Guarnaccia, 2002).

문화 부적응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다문화 청소년들은 문화와 가치관의 혼란을 비롯한 한국문화 이해부족의 이유로 학습부진, 소외감 및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김정원, 2006). 어린 시절에 경험한 편견과 차별은 다문화 청소년들의 인지·행동에 영향을 주어 사회적인 행동문제와 정서 불안정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Compas, Conner-Smith,

Saltzman, Thomas, & Wadsworth, 2001), 이는 성인기까지 이어져 사회생활 부적응을 겪게 된다(Kaufman, Raphael, & Espeland, 1999).

이외에도 다문화 청소년들은 이중 문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낮은 자아존중감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부적응을 겪는다(백지숙, 김진, 정효경, 2014). 다문화 청소년들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하여 사회적 환경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은선경, 2010),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경험한 대인관계 문제는 고립감과 공허감 등의 심리적 혼란을 주어 바른 성장을 방해한다(채유경, 2004).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동하는 시기로 급격한 신체적, 정서적, 환경적 변화가 일어나며(소수연, 안지영, 양대회, 김경민, 2014), 개인의 욕구와 능력, 신념을 바탕으로 일정한 자아상을 만들어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결정적 시기이다. 특히 청소년기에 확립되는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형성하고 유지하는 평가로써(Coopersmith, 1967),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신념을 말한다(Harter, 1993). 더불어 자아존중감의 발달은 주위사람들과의 지속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부모나 형제, 친구, 타인과의 인간관계 등의 영향을 받는다(Mead, 1934).

정부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부, 지자체, 지역 센터 등에서 교육, 복지, 법률 등 다양한 지원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안정적인 적응을 돕고 있다. 그러나 관련기관에 따라 지원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노력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긍정적인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연이, 2011; 조현상, 2009).

다문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선행연구들은 일반적 접근과 치료적 접근을 적용하여 수행되었다. 집단 상담 프로그램(구항

숙, 2013), 적응유연성 증진 프로그램(박은민, 2014), 비행예방 프로그램(이철원, 2013), 수련활동(오영훈, 임한나, 2014)등의 일반적 접근은 모두 집단 중심의 활동으로 진행되어, 다문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였다. 표현예술치료(도윤지, 2010), 미술치료(김정옥, 2015; 임선숙, 2014)의 치료적 접근 또한, 예술 활동을 통하여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문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반면에 집단상담과 적응유연성 증진 프로그램은 회기별로 참여자들에게 회기마다 다른 주제를 주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며,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신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조경원, 2008). 일대일 멘토링으로 진행되는 비행예방 프로그램은 각자 만나는 멘토의 대상에 따라 다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기에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이미정, 박미숙, 2012). 표현예술치료와 미술치료에서는 찰흙, 그리기, 색칠하기, 몸동작하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어떤 활동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기 어렵다(전미향, 1997).

음악은 청소년들에게 거부감 없이 가장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매체 중 하나이다. 음악은 나라와 민족의 경계를 허물어 공동체 안에서의 감정적 교류와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으며(민경훈, 2009), 다른 사람과 동등한 입장에서 비경쟁적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음악 안에서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은 대인관계 확립과 사회적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Gooding, 2011).

합주는 여러 사람이 함께 연주하는 활동으로 참여자의 음악적 배경이나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별치료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동시적 반응이 그룹 구성원들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제공하여 대인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그룹 음악치료가 진행됨에 따라 합주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스스로를 가치있는 존재라고 느끼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George & Dustin, 1998).

합주의 치료적 가치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입증되고 있다(김경은, 2014; 김혜정, 양은아, 2013; 양은정, 2008; 이승민, 2015). 합주의 유형은 밴드 구성, 타악기, 유폴악기 등 연주되는 악기의 특성에 따라 분류될 수 있으며, 합주를 통해 완성된 음악적인 만족감은 내담자의 심리상태에 기대 이상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김상락(2014)은 합주를 통해 다양한 소리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풍부한 음색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구성원 각자가 서로 다른 악기를 연주해야 하는 밴드합주에서는 여러 참여자가 동일한 악기를 선호할 경우, 악기 선정과 배치의 과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밴드합주는 악기마다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각기 다른 연주방법을 필요로 하여 참여자들이 악기를 익히고 연주하는 준비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합주의 단점은 단일악기를 활용한 합주를 통해 보완될 수 있다. 동일한 악기를 연주하는 활동에 참여한 개인은 타인과 융화되어 상호협력하며 협동심과 소속감, 자신감, 긍정적 사고를 가질 수 있다(조충연, 2007). 그룹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일악기 합주에 적합한 악기는 톤차임, 자일로폰, 벨, 북웨어 등이 있다. 이러한 유폴 악기는 숙련도의 구애를 받지 않으며, 고유의 음고(pitch)가 정해져 있어 개개인이 악기의 부분적 역할을 담당하여 그룹의 기능적 역할을 높일 수 있다(이상은, 2014). 그 중에서도 톤차임은 연주방법이 간단하여 아동,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사용 가능한 악기이다. 톤차임은 핸드벨이나 자일로폰 등 다른 선율악기에 비해 음색이 명료하고 안정된 소리를 제공하며, 손목의 움직임에 이용한 연주방식에 따라 빠른 리듬으로도 연주가 가능하다.

톤차임 합주의 특성은 구성원 각자가 맡은 음에 해당하는 악기를 가지고 다른 구성원과 함께 음악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연주 역할에 따른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정진희, 정규진, 최애나, 2015). 합주 형식에서 부여된 음악적 책임감은 구성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집중력을 증진시키고, 주도성을 높일 수 있다(주빛나, 2014). 실제 음악치료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톤차임은 학교나 지역, 사회 기관 등 청소년들이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없기에 참여자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기 적합하며, 치료사들도 선호하는 악기이다.

김민경(2007)은 톤차임과 유사한 자일로폰 악기 합주가 지적장애 청소년의 주의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으며, 정진희, 정규진과 최애나(2015)는 톤차임 연주를 통해 결손가정 아동의 집중력과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유율 타악기 합주가 가출 청소년의 사회기술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다는 양은정(2008)의 보고에서도 단일악기 합주를 활용한 음악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악치료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는 유지아(2016)의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타악기 즉흥연주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며, 김은선(2010), 성한나(2016), 정태미(2010), 최진영(2015)의 연구는 모두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다문화 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를 적용하여, 이들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음악치료 시행 여부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톤차임을 활용한 합주 활동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음악 안에서 비경쟁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음악치료 활동을 제공하고, 학교 현장에서도 이를 활용하여 이들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가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음악치료 활동의 시행 여부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 향상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1)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총체적 자아존중감 향상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2)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사회적 자아존중감 향상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3)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가정적 자아존중감 향상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4)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학교적 자아존중감 향상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2)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대인관계 향상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1)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통제지배 향상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2)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자기중심성 향상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 (3)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 집단에 비해 냉담 향상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 (4)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 집단에 비해 사회적 억제 향상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 (5)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 집단에 비해 비주장성 향상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 (6)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 집단에 비해 과순응성 향상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 (7)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 집단에 비해 자기희생 향상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 (8)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 집단에 비해 과관여 향상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3. 용어정의

1)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을 의미하는 결혼이민자, 출생·인지·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로 규정하며(다문화가족지원법, 2011), 외국인 근로자 가정, 국제결혼가정, 새터민 가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가족 구성원이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근로자 가정으로 한정하였다.

2)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은 외국에서 출생 후 부모와 함께 한국으로 이주했거나 부모가 한국으로 이주한 후에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청소년을 말한다. 다문화 청소년의 연령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 이민자와 귀화 허가를 받은 24세 이하의 외국인 자녀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2010)에서는 이들의 연령을 만 7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을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인 만 14세에서 만 16세까지의 청소년으로 정의한다.

3) 자아존중감(Self-esteem)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자아를 수용하며, 하나의 특별한 객체인 자아에 대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태도의 가치를 느끼는 정서적인 의미의 평가로써,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경험되는 타인의 평가에 근거하여 발달된다(Rosenberg, 1979). Tice(1991)는 자아존중감을 자아에 대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평가라고 정의하였으며, Branden(1987)은 인간의 사고과정, 감정, 욕구, 평가, 목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자기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정의한다.

4)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

대인관계란 일반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며, 타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하는지에 대한 개인의 보편적인 심리적 지향성 및 개인의 내·외적간 관계를 의미한다(Heider, 1964). 대인관계는 청소년의 사

회성 발달과 미래생활의 적응을 위한 기본적인 과업으로(강소영, 2000), 둘 이상의 사람들 간 발생하는 상호의존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이형득, 1995).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는 자기 이해를 기반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통해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맺음으로써 형성되는 관계로 정의한다.

5) 톤차임 합주

합주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여럿이 같이 하는 연주 활동으로, 서로의 소리를 들으며 악기를 연주하는 경험을 통해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고 곡의 전체적인 조화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이다(김현경, 2011). 톤차임은 어린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대상에게 활용 가능하며, 악기마다 고유 음고가 정해져 있어 동일한 악기의 연주를 통해 구성원 각자에게 차별 없이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톤차임 합주는 리듬, 선율, 화음 연주 등 각 회기마다 난이도를 상향 조정하여 그룹 구성원이 역할을 맡아 개개인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함께 곡을 완수하는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청소년

1) 다문화 청소년의 개념 및 현황

한국에서의 다문화 정책은 2000년대 이후 급증하는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에 의해 추진되면서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으로 본격화되었다(이경윤, 2012). 다문화가정은 광의와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광의의 개념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가정과 국제결혼가정, 새터민 가정으로 구분되고, 협의의 개념으로는 새터민 가정을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 가정과 국제결혼가정으로 구분된다(정지윤, 2011). 즉, 광의의 개념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가정을 포함하고, 협의의 개념은 가족 중 한 명 이상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가정을 말한다(임한나, 2008).

다문화 청소년은 두 가지 이상의 문화권에 걸쳐 성장하고 생활하는 청소년으로(정지윤, 2011),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와 귀화허가를 받은 24세 이하의 외국인의 자녀로 규정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2011). 다문화 청소년 또한 다문화가정의 개념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가정 청소년, 결혼이주 가정 청소년, 새터민 청소년으로 분류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가정 청소년은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출생한 청소년으로, 한국에서 출생하거나 본국에서 출생 후 가족 구성원이 함께 한국으로 이주한 청소년을 말한다.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은 서로 다른 두 나라의 국적을 가진 부모가 혼인하여 이루어진 가정에서 출생한 청소년이며, 새터민 가정

청소년은 탈북자 출신의 부모에게서 출생한 청소년 또는 탈북 하여 한국인과 혼인한 가정에서 출생한 청소년을 지칭한다(정하성, 유진이, 이장현, 2007).

유영경(2016)은 다문화 청소년을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로 이루어진 결혼이민자 가정의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정의하였으며, 임한나(2008)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인 근로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10세-19세의 외국인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정다운(2008)은 다문화 청소년을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에 입국한 6세-20세의 새터민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주정(2011)은 초·중·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연령의 범위를 제한하여 정의하였다. 이처럼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개념의 범위는 연구자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으로 다양하게 정의된다.

<표 II-1> 다문화가정 학생 수 현황

구분	2012년				2015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한국 출생	29,303	8,196	2,541	40,040	41,575	10,325	5,598	57,498
중도 입국	2,676	986	626	4,288	3,268	1,389	945	5,602
외국인 자녀	1,813	465	348	2,626	3,454	811	441	4,706
계	33,792	9,647	3,515	46,954	48,297	12,525	6,984	67,806

출처: 통계청(2016)

통계청(2016)에 따르면, <표 II-1>에서와 같이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전체 학생 수는 2012년 46,954명에서 2015년 67,806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한국 사회에 자리잡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진입하므로 다문화 청소년들의 비율은 앞으로

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통계청(2016)에서 발표한 ‘연도별 전체 청소년 대비 다문화 청소년 비율’에 따르면, 2015년에 집계된 다문화 청소년 수는 약 82,536명으로, 전년 약 67,806명보다 21.7%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청소년 비율은 매년 약 2만 명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 청소년 비율은 전체 학생수의 1.4%에 해당할 정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최근 5년간 증가 추이는 <표 II-2>에 제시되었다.

<표 II-2> 연도별 전체 청소년 대비 다문화 청소년 비율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청소년(천명)	6,987	6,732	6,529	6,334	6,097
다문화 청소년(명)	38,678	46,954	55,780	67,806	82,536
비율(%)	0.6%	0.7%	0.9%	1.1%	1.4%

출처: 통계청(2016)

이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가정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 가정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2015)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 총 779,515명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608,116명, 결혼이민자 147,382명, 유학생 84,329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유형이 다른 다문화가정의 유형보다 많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보아 향후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측 가능하다.

2)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

청소년기는 성인기의 사회적응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으로, 사회·정서·인

지·신체·도덕적인 경험의 조화를 통하여 긍정적인 성장 발달을 경험하는 중요한 시기이다(Melpigno & Collins, 2003). 그러나 다문화 청소년들의 문화적 혼란은 한국 내에서 문화적·인종적 갈등, 사회적 편견, 사회 부적응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Kim, 2016), 대부분의 다문화 청소년들은 문화적 차이를 겪으며, 학교에서의 정체성 혼란, 편견과 차별, 학습 결손 등의 문제로 인하여 학교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다(이유경, 류재윤, 방홍복, 2012). 이는 친구, 교사, 학교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자아존중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황성동, 박은혜, 2010).

또한 갈등으로 인한 가정 해체는 가정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을 주어 자신들의 사회적 환경과 개인의 존재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게 한다. 김오남(2006)은 다문화가정 내 부모 갈등의 빈도와 강도가 일반 가정에 비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오정아와 김영희(2015)는 부모의 갈등을 보고 자란 다문화 청소년들의 자아인식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김홍주와 박길태(2010)는 가족들과의 시간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소외감으로 인해 다문화 청소년들의 욕구 불만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청소년기에 부모에게 애정적이고 정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자아존중감 형성에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Coopersmith, 1981).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로, 성장과 함께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권민균, 문혁준, 권희경, 2012; 임수경, 이형실, 2007; 정익중, 박현선, 구인회, 2006). 특히 부모나 형제, 친구, 타인 등 주위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은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김희정, 정다운, 2011). 김혜미와 문혜진(2013)은 다문화 청소년들이 차별경험으로 인하여 소외감을 느끼고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어 일반 청소년보다 학교적응 수준이 유의하게 낮다고 보고하였으며, 이혜림(2015)은

다문화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우울과 불안감, 무력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하였다.

이처럼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면 또래 집단과의 사회적인 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김예성, 오승환, 2016; 모경환, 이재분, 홍종명, 임정수, 2015; 배장오, 진서현, 2015; 오정아, 김영희, 2015). 학교 부적응은 학업성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래 관계에서의 따돌림 경험은 자아존중감 형성에 부정적인 요소가 된다. 즉, 자아존중감이라는 내면의 기초적인 토대를 형성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Browne & Cudeck, 1993), 이러한 태도는 대인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정삼현, 2015).

3)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에 대한 정의는 개인적인 기준에 따라 학자들마다 상이하다.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의 중요성, 유능감, 가치 등에 대해 자기 자신에게 하는 평가로써, 개인이 자신을 능력있고 성공적이며 의미있는 존재라고 믿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Rosenberg(1979)는 개인이 스스로에게 기대하는 가능성에 대한 성취비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자아존중감이라고 하며, 자신을 하나의 대상으로 볼 때 가지게 되는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 전체이자, 자아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자아존중감은 자기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Baumeister, Dori, & Hastings, 1998; Brown & Mankowski, 1993).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잘 수용하고 사회적 관계

에 안정적이며,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으로 인하여 성취감이 높다 (Reasoner, 1982).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감이 결여되어 실패에 두려움을 느끼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Parker & Benson, 2005).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하나의 사건을 부정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 관계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 이는 대인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사회적 관계를 원만하게 맺을 수 없고 개인의 성장 발달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이민선, 채규만, 2012).

다문화 청소년들은 모국이 아닌 한국에서의 생활로 인하여 가치관과 생활 태도가 다른 문화 속에서 성장하게 되므로 긴장과 갈등을 빈번하게 겪을 수 있다(전영희, 2012). 문화 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긴장과 불안의 반복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우울, 소외감을 느끼게 하여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온다(Castro, 2003).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는 문화부적응과 우울을 증가시켜 부정적인 행동을 초래하게 만든다(박형수, 유진호, 박부연, 2013).

문화 부적응을 겪는 다문화 청소년들은 자신을 바라보는 타인의 우려 섞인 시선과 편견들로 인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송선진, 2007). 자아존중감이 낮은 다문화 청소년들은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 실패를 두려워하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들은 자기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평가하여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원만한 사회생활과, 자아실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Coopersmith, 1967).

다문화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구향숙(2013)은 긍정심리 및 해결중심접근을 토대로 심리상담을 진행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박은민(2014)은 적응유연성 증진 프로그램이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보고하였다. 김경수(2015) 역시 통합적 상담접근을 사용한 미술치료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며, 추유리와 강지예(2014)는 모래를 이용한 작품 만들기가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발달적 측면에서의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 변화될 수 있고 의미있는 타인들이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Akin, 1990), 지속적인 변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4) 다문화 청소년의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소수의 사람들이나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를 의미하며, 개인이 타인에 대해서 느끼는 생각과 지각, 행동, 반응으로 정의할 수 있다(Heider, 1964).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필수적이며, 일반적으로 인간의 행동은 사회적 구조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원만한 대인관계의 형성은 개인의 인격발달과 정체성 확립, 자아 형성, 성격 발달, 성취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나,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의 형성은 불안, 우울감, 욕구좌절, 소외감 등의 정서적인 어려움과 심리적 병리를 발생시킬 수 있다(권석만, 1995; 문성실, 2010; 윤다예, 2015).

학교생활은 청소년들이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사회에 적응하며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남상아, 백지숙, 2011; 이규미, 김명식, 2008; 전수정, 윤혜미, 2013), 청소년기의 올바른 학교 적응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다문화 청소년들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신이 다문화가정의 자녀인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백지숙, 김진, 유영하, 2013), 사회적으로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 학교에서 또래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청소년들은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이소희, 이선희, 2013), 이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따돌림의 경험은 학교생활에서의 자신감을 저하시켜 원만하지 않은 친구관계, 학습의 흥미결여, 학교 부적응, 학습부진, 중도 탈락율 증가, 낮은 취학률과 진학률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김경란, 2007; 보건복지가족부, 2005).

조민구와 최진이(2013)는 신체활동 중심의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되고, 그룹 내의 친밀감이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 김태희(2013)는 협동학습모형에 참여한 다문화 청소년들은 사회성 기술이 향상되어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하였으며, 이철원(2013) 역시 비행예방 프로그램을 통한 상담 접근이 다문화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였다. 김화성, 유형근과 남순임(2014)은 다문화 청소년들이 자신이 겪는 혼란, 고립감, 어려움 등을 집단 상담을 통해 그룹과 공유하면서 심리적 지지와 위로를 경험하여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됨을 보고하였다.

예술매체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집단미술치료가 다문화 청소년의 스트레스 감소와 또래관계 향상에 효과적이었다고 하였으며(박선희, 2010), 미술치료가 다문화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개선시켰다고 하였다(박수정, 최연실, 2010). 이처럼 청소년기는 또래관계를 형성하여 미래생활에서의 대인관계를 준비하는 시기로 다문화 청소년들이 더 큰 사회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대인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2. 다문화 청소년의 음악

1) 청소년기 음악의 활용

음악은 다양한 예술 매체 중 청소년들이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선호하는 매체이다.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불리는 청소년들은 음악을 통해 이들의 내적 감정을 분출하고 표현하며(박지영, 문소영, 2016; 최병철, 황은영, 2011), 자신이 느끼는 정서와 일치하는 음악을 찾고 감상하고 연주하는 등, 스트레스 대처의 도구로 음악을 사용하기도 한다(Laiho, 2004). 이처럼 음악은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친숙한 매체로 그들의 사회·심리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유용한 치료 도구가 될 수 있다.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음악 활동은 크게 감상, 가창, 연주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음악 감상은 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음악을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서승미(2005)는 청소년들이 하루 평균 1시간에서 3시간 동안 음악 감상으로 시간을 보낸다고 하였다. 또한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다(김시연, 2016). 음악을 듣는 동안 감상자는 신체적으로 긴장이완의 생리적 반응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정서적 환기를 통해 감정적 반응이 유발된다.

청소년들은 가창을 통해 내면의 모습을 탐색하고 목소리, 음색, 리듬, 선율을 사용하여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Bruscia, 2000). 특히 청소년들은 대중음악을 가장 선호한다(송주승, 정혜명, 2010; 지혜미, 2009). 대중음악은 환경적 조건으로 인해 노출이 많이 되는 조건에 놓여있어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대중음악은 가요, 재즈, 힙합 등 다양한 장르로 구분되며, 자극적인 가사와 리듬이 내적 흥분을 받

산하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감정을 분출하도록 한다(김혜경, 2000). 또한 청소년들은 대중음악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신의 모습을 노래 가사에 대입하여 표현함으로써 인해 내적인 심정을 표출할 수 있다(김미향, 2005). 이처럼 선호하는 노래를 직접 소리 내어 자신의 목소리로 표현하는 것은 내면을 탐색하고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직접 악기로 연주하기를 희망한다. 악기연주는 감상과 가창보다 능동적인 활동으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노래를 직접 연주함으로써 즐거움을 얻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들은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가수나 스타를 동경하여 자신도 그들과 동일시되기를 원하며(임영식, 2002), 좋아하는 가수의 모습을 따라하고 그들의 노래를 직접 연주하는 것을 즐긴다. 특히 청소년들은 방송매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밴드합주를 선호한다. 밴드합주는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동기유발을 자극할 수 있으며(김상락, 2014), 그들만의 집단을 만들어 친구들과 선호하는 음악을 교류하고 연주하는 것은 또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김민, 2003).

이외에도 청소년들은 감정과 정서, 내적인 필요와 문제를 파악하고 변화를 위한 도구로써 악기연주를 사용하기도 한다(Yun, 2014). 청소년들은 악기 연주에 필요한 신체적 활동을 통해 억압되어 있던 자신의 욕구를 외부로 표출시켜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 정서로 전환시킬 수 있다(Clark, Baker, & Taylor, 2016; Saarikallio & Erkkila, 2007). 또한 유행하는 노래를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연주하는 것은 그룹에서의 결속력과 유대감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Tervo, 2001).

2)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음악치료

다문화 청소년은 차별과 편견, 문화적 차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또래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음악은 그 자체만으로 언어의 기능을 하며 감정적인 반응을 유발하기에 (Moreno, 1988), 억눌린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의 역할을 하며, 슬픔, 기쁨, 놀람 등의 많은 감정을 표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Radocy & Boyle, 1997). 또한 이들은 음악 활동을 통해 긴장이완과 카타르시스를 경험함으로써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Burns, 2001), 음악을 통한 비언어적 소통으로 대인관계를 형성 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

노래는 삶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의미를 찾도록 하여 올바른 자아상을 형성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박지영, 문소영, 2016; 임해주, 2009; 임현정, 2009). 그러나 다문화 청소년들은 모국어보다 한국어의 언어표현이 자유롭지 못하여 한국어로 된 노래를 부르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가사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 가사를 통한 느낌과 생각의 전달로 감정을 유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악기 연주는 음악 안에서의 자유로운 표현을 도와 다문화 청소년들이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며,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한다. 다문화 청소년들은 악기를 배우고 연주하는 것만으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으며, 성공적인 음악 경험을 할 수 있다. 각 악기가 가진 고유의 특성과 소리를 이용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은 감정을 이입하고 자유롭게 표출함과 동시에 기쁨과 보람 등의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은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성취감과 음악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장은영, 2008).

이미 보고된 연구에서는 사물악기(김근자, 2009), 악기연주(정태미, 2010) 등의 악기를 사용하여 그룹으로 음악활동을 진행한 결과, 다문화 자녀의 스트레스 감소, 사회성과 학교생활적응 향상 효과를 보고하였다. 악기 연주는 그룹으로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양한 악기들을 사용하여 구성원과 함께하는 그룹 연주는 의사소통 기술을 증진시키고 사회교류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적으로 인정받거나 보상받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Sears, 1968). 또한 그룹 활동은 응집력을 촉진시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자신의 성찰, 자기표현에 도움을 주어 대인관계를 확립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송숙경, 2016). 즉, 그룹이 함께하는 악기 연주는 그 자체만으로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경험적 체험을 가능하게 해주어 다문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

1) 합주의 치료적 특성

합주는 둘 이상의 인원이 그룹을 이루어 하는 연주 활동으로 음악치료 영역에서 치료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음악활동 가운데 하나이다(김혜정, 양은아, 2013). 합주는 활동의 특성상 혼자서 시행될 수 없으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악기를 연주하며, 서로 다른 악기의 소리를 듣는 경험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갖도록 한다(이현숙, 2008).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 역동적인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서 합주에 참여한 구성원들은 음악이 제공하는 동시적 쾌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Boxill, 1985), 상호적인 음악적 관계는 감정 표현 및 통제를 발달시키도록 도와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역할을 한다(정현주, 2015).

합주의 유형은 사용되는 악기에 따라 밴드, 타악기, 유율악기 합주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악기로 함께 합주를 하거나 단일 악기만을 사용하여 합주를 진행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보고된 선행연구에서는 밴드(김상락, 2014; 이경미, 2015), 유율 악기(양은정, 2008), 태블릿PC(김경은, 2014), 기악(김혜정, 양은아, 2013), 리듬악기(김선하, 2009; 이현주, 2007)등 다양한 악기를 사용한 합주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또한 리코더(이승민, 2015), 기타(임연희, 2012), 가야금(임미소, 2015), 우쿨렐레(송숙경, 2016, 이시아, 2016; 홍소정, 2015)등의 단일악기만을 가지고 합주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도 치료적 효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처럼 합주는 언어적 표현 없이도 구성원들에게 음악으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Aigen, 2009; Turry, 2007, Viega & Baker, 2016). 함께 연주하는 구성원들에게서 얻는 음악적 지지감은 성공과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며, 자신의 연주에 대한 칭찬이나 비평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Hibben, 1984). 또한 구성원과 더불어 음악을 완성하는 성공적인 경험은 음악적 만족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자아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자아는 자신의 모습을 탐색하고 인식하게 하며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도록 한다(김상철, 김영숙, 이현림, 2007; Goldberg & Chandler, 1989).

합주는 구성원들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고 곡의 전체적인 조화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친밀감을 강화하여 상호작용에 도움을 준다(김현경, 2011). 음악이 구성원과 관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합주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소속감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구성원들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거나 타인과 협동하는 등,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음악적 환경 안에서 다루어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기술을 습득하여 또래관계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밴드합주의 경우 고가의 악기를 구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밴드는 합주에 필요한 장비들이 많고 음향 문제 등으로 인해 연주 장소에 제약이 있다.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여러 악기가 함께 합주를 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동일한 악기를 선호할 경우, 악기의 분배와 합주 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악기마다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경험과 선행지식이 없을 경우에 개개인이 악기에 따른 연주 방법을 습득하고 하나로 통합하는 준비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김상락, 2014; 이경미, 2015).

단일악기 합주는 구성원들이 모두 동일한 악기를 연주하므로 차별이 없는 비경쟁적인 환경에서 합주가 이루어지며, 악기의 연주방법이 비교적 간단하여 부담 없이 연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사전교육이 필요한 악기이더라도 연주방법이 동일하기에 구성원이 협력하여 연주방법을 습득하고 연주하는 과정에서 친밀감을 높이고 그룹 응집력이 향상될 수 있다.

2)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

톤차임은 악기마다 고유의 음고가 정해져 있는 유율악기로써, 특수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몸울림 악기에 속한다. 콰이어차임이라고도 불리는 톤차임은 핸드차임, 멜로디차임 등 그 명칭이 다양하다(정현주, 2015). 톤차임은 한 음씩 손으로 잡고 연주하며, 무게가 가볍고 연주방법이 간단하여 어린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대상에게 활용 가능하다. 연주방법은 손목의 힘으로 둥글게 원을 그리며 해머를 울려서 소리를 내며, 이러한 조작에 따라 울림이 길고 음색이 명료한 소리를 낸다. 악기의 진동은 연주자의 신체 감각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어 연주에 몰입할 수 있게 해주고, 톤차임이 가진 차별한 음색과 여운이 있는 고유한 소리는 연주자와 감상자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어 긍정적인 정서경험을 유발한다.

톤차임은 조작 방법이 용이하여 선행 연주 경험이 없어도 즉석에서 연주 방법의 습득이 가능하다. 실제로 톤차임은 다른 유율 악기에 비해 학교나 기관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접할 수 없고 고가이므로 청소년들이 악기에 흥미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악기를 조작하는 노력과 움직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음악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톤차임 악기는 25음이 한 세트로 넓은 음역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소리로 낼 수 없는 음역의 소리까지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음역대에 따라 악기의 수가 달라지며 다양한 곡을 소화할 수 있다.

톤차임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그룹을 이루어 자신의 악기에 해당하는 음을 연주해야 한다. 연주자 자신은 하나 혹은 두개의 음을 연주하나, 그룹 구성원과 함께 리듬, 선율, 화음을 연주하여 풍성한 음악적 반응과 높은 음악적 만족도를 경험할 수 있다. 템포, 리듬, 다이내믹, 조성 등의 다양한 음악적 요소로 구성된 음악은 정서적 반응과 감정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배은영, 2008). 이러한 감정의 변화는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도록 하여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룹 구성원들이 각자 맡은 음의 악기를 연주하여 곡을 완성하며 스스로 맡게되는 책임감은, 구성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도성을 높일 수 있다(주빛나, 2014). 개인의 책임을 완수하며 곡을 완성해 나갈 때 자신의 차례를 놓치는 실수를 하게 되면 음악의 진행에 공백이 생기므로 그룹 구성원들은 연주되는 음악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인 책임'을 경험하게 된다. 각자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과제수행에 따른 성취감을 제공하고, 자신이 연주한 악기의 음이 넓은 음역대의 곡에 기여했다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양은정, 2008).

톤차임 연주는 이미 다수의 연구(김지현, 2006; 송옥경, 2003; 양은정,

2008; 이인용, 2000)에서 활용된 바 있다. 진윤경(2014)은 톤차임 연주를 통해 중도시각 장애인이 음악적 지지를 통한 자기효능감을 인식하고, 긍정적 자원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왕혜자(2015)는 톤차임의 차별한 음색을 통하여 노인의 긍정적 정서를 함양할 수 있다고 하였다. 손미나(2015)는 톤차임으로 함께 음악을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결손가정 아동의 관계형성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 하였으며, 최유진(2015) 역시 톤차임 연주를 통한 음악적 상호교류는 초등학생의 사회적 교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대인관계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톤차임 합주가 다양한 내담자의 부정적인 정서를 표출하여 긍정적인 자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고, 친밀한 관계를 제공하는데 효과적임을 입증한다. 따라서 톤차임 합주는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적용하여도 문화부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하여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치료적 활동임을 알 수 있다.

톤차임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악곡을 표기한 기보법을 모르더라도 연주가 가능하도록 연주곡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이 필요하다. 음악 치료 활동에서 색깔악보나 숫자악보를 활용하는 것은 연주 참여자들이 보다 쉽게 연주를 완성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므로, 각자의 음악 교육 경험과 사전 음악 지식이 다를 수 있는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톤차임이라는 동일한 악기를 사용하여 음악을 완성할 때 다른 참여자들과 동등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차별의 경험이 있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합주의 과정에서 더욱 자아존중감을 느낄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소재한 M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14세-16세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학교 담당자와의 사전 면담을 통해 총 20명(남자 9명, 여자 11명)을 선별한 후, 실험집단 10명(남자 4명, 여자 6명)과 통제집단 10명(남자 5명, 여자 5명)으로 구분하여 무선배치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 선정 기준은 외국인 근로자인 부모와 함께 한국에 거주한지 3년 이상 된 청소년, 부모가 몽골 국적을 갖고 있으며 동일 국적을 가진 청소년,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읽고 쓰기에 이상이 없는 청소년으로 제한하여 지필검사 및 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몽골 출신 청소년들로 연구대상을 제한하였다. 몽골 민족은 가족단위로 이동하는 민족적 성향이 있어 부모와 함께 청소년들이 이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외국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가운데 몽골 출신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오성배, 2013).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은 14세(7명), 15세(8명), 16세(5명)이며, 형제 수는 1명(12명), 2명(4명), 외동(4명)으로 확인되었다. 부모님의 나이는 35세-40세가 가장 많은 수를 나타냈다. <표 III-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일반적 특성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비교적 동질하다고 볼 수 있다.

<표Ⅲ-1> 다문화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실험	통제	전체
성별	남	4	5	9
	여	6	5	11
연령	14세	3	4	7
	15세	5	3	8
	16세	2	3	5
형제 수	1명	6	6	12
	2명	2	2	4
	외동	2	2	4
아버지 나이	35-40세	6	6	12
	41-45세	1	2	3
	46세 이상	3	1	4
	한부모	0	1	1
어머니 나이	35-40세	7	7	14
	41-45세	3	2	5
	한부모	0	1	1
거주지역	서울	7	6	13
	경기	3	2	5
	기타	0	2	2
거주기간	3년	3	2	5
	4년	3	3	6
	5년	1	2	3
	6년 이상	3	3	6
부모님 직업	건설직	2	1	3
	판매 및 서비스직	2	2	4
	사무직	2	3	5
	공장	2	2	4
	경비 및 청소관련직	2	2	4

2. 연구설계

본 연구는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가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음악치료 활동의 시행여부에 따라 처치를 가하는 실험집단과 처치를 가하지 않는 통제집단으로 구분되는 ‘전후 검사 통제집단(Pretest-Posttest Control-Group Design)’의 설계로 이루어졌다. ‘전후 검사 통제집단’의 설계는 <표 III-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무선배치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전체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며,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 활동은 실험집단에게만 시행되는 방식이다.

<표 III-2> 전후 검사 통제집단 설계

분류	무선배치	사전검사	처리	사후검사
실험집단	R	O	X	O
통제집단	R	O		O

(R은 무선배치, O는 사전·사후 검사, X는 음악치료)

3. 측정도구

1) 자아존중감 검사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Coopersmith(1981)가 각 개인의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Inventory)를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최보가와 전귀연(1993)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검사결과를 분석한 후, 공통요인으로 묶여

지는 문항을 도출하여 척도를 재구성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총체적 자아존중감(6문항), 사회적 자아존중감(9문항), 가정적 자아존중감(9문항), 학교적 자아존중감(8문항)의 4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2문항이다. 본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응답하게 설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8문항에 대해서는 점수를 역으로 계산하였다. 최보가와 전귀연(1993)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Cronbach’s α) 계수는 .69-.84 범위였으며, 김국현(2016)의 연구에서 하위 척도별 신뢰도 계수는 .74-.89, 전체 신뢰도는 .91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표 III-3> 자아존중감 검사의 하위요인별 문항

하위영역	문항번호	신뢰도
총체적 자아존중감	1, 5, 9, 13, 17, 21	.79
사회적 자아존중감	2, 6, 10, 14, 18, 22, 25, 28, 31	.89
가정적 자아존중감	3, 7, 11, 15, 19, 23, 26, 29, 32	.88
학교적 자아존중감	4*, 8*, 12*, 16*, 20*, 24*, 27*, 30*	.74
합계		.91

출처: 김국현(2016)

* 역채점 문항을 나타냄.

2) 대인관계 검사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대인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Horowitz, Rosenberg, Baer, Ureno와 Villasenor(1988)가 개발한 대인관계문제검사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IIP)를 김영환 외(2002)가 한국 실정에 맞는 문항들을 추가, 보완하여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단축형(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 KIIP-SC)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대인관계 영역은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의 8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5문항씩 총 40문항이다. 본 도구는 Likert 5점 척도 형식으로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응답하게 설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뢰도(Cronbach's α)는 .68-.93의 범위였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1-.89의 범위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김영환 외, 2002).

<표 III-4> 대인관계 검사의 하위요인별 문항

하위영역	문항번호	신뢰도
통제지배	19, 21, 27, 30, 33	.75
자기중심성	6, 7, 10, 13, 22	.83
냉담	2, 8, 9, 15, 18	.82
사회적 억제	4, 12, 17, 31, 36	.80
비주장성	1, 3, 5, 11, 16	.85
과순응성	14, 23, 34, 37, 39	.80
자기희생	20, 24, 25, 32, 40	.68
과관여	26, 28, 29, 35, 38	.72
계		.93

출처: 이동욱(2015)

4. 연구절차

1) 사전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참여자인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기초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사전에 학교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사전에 본 연구의 목적과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 활동 시행에 대한 정보와 설명을 통하여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며, 동의서에는 개인정보 비밀 보장과 연구 참여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었다. 보호자 동의서는 연구 참여자 표집 후 연구자가 직접 배포하고 수거하였으며, 다문화 청소년의 설문지 내용에는 참여자의 성별, 연령, 한국 거주기간 등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이 포함되었다.

2) 사전검사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사전검사는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를 실시하기 이전인 2016년 8월 12일에 연구자와 학교 담당자 1명에 의하여 교내에 위치한 음악실에서 실시되었다.

3) 실험

본 연구의 실험은 사전 검사에 이어 2016년 8월 16일부터 9월 27일까지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를 6주 동안 주 2회 실시하였다. 한 회기에 소요된 시간은 45분으로 전체 활동은 총 12회기로 구성되었다.

4) 사후검사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사후검사는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가 종결된 이후인 2016년 9월 30일에 사전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5.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 활동

본 연구에서는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가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음악치료 활동을 초기, 중기, 후기의 3단계로 나누어 총 12회기로 구성하였다.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 활동은 선율 연주 및 화음 연주, 2성부와 3성부 앙상블 연주 등이 포함되었으며, 연구자가 사전에 제작한 숫자 악보를 보고 자신이 맡은 음의 악기를 연주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숫자 악보는 연구자가 톤차임에 숫자 스티커를 부착하여 자신의 숫자가 적힌 부분에 맞게 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룹이 착석한 상태의 눈높이에 맞게 정면에 게시하였다.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 활동에서는 선행 학습이나 교육 없이도 다문화 청소년들이 연주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악기의 분배나 악보에 주의를 기울여 연구자가 숫자 악보를 고안하였다. 또한 연구자에 의해 개인이 연주해야 하는 횟수를 동등하도록 숫자를 지정하여 악기를 분배하였으며, 연주함에 있어서 최소의 노력을 들여 최대의 음악적 만족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른 음악치료 활동은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을 회기별 목표로 적용하였으며, 구체적인 활동 및 회기별 목표는 <표 III-5>와 같다.

<표 III-5>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 활동의 회기별 목표 구성

단계	회기	회기별 목표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 활동
초기	1회기	치료사와 그룹 구성원간의 친밀감 및 소속감을 통한	악기 탐색
	2회기	긍정적인 관계형성	4분음표 순차진행 선율 연주
중기	3회기	자기의 내면 탐색 및 자기표현	8분음표로 분할된 빠른 리듬의 선율 연주
	4회기	긍정적 정서 함양	8분음표와 쉼표, 도약이 포함된 선율 연주
	5회기	그룹 구성원의 지지 및 자신감 향상	주요 3화음으로 화음연주
	6회기	협동심 증진 및 자긍심 증진	주요 3화음과 대리화음 연주
	7회기	만족감과 성취감을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	3화음에서 7음이 추가된 7화음 연주
	8회기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향상	3화음, 7화음, 9화음 등 확장된 화음 연주
후기	9회기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 및 타인 인식	선율과 화성 2성부 연주
	10회기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능력 향상	선율 연주를 기반으로 2성부 및 3성부 앙상블 연주
	11회기	타인에 대한 이해심 향상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	2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선율부와 반주부 연주
	12회기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대인관계 능력 향상	모든 음악적 요소가 담긴 연주곡 합주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 활동의 초기 단계인 1회기와 2회기에서는 톤차임 악기탐색 및 연주방법을 비롯하여 치료사와 내담자, 그룹 구성원과의 라포형성과 구성원 간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목표로 하였다. 이는 구성원과의 악기탐색을 통하여 음악을 함께 완성해나가는 소속감을 경험하며, 이를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기단계(3-8회기)인 3회기에서는 자기 내면의 모습 탐색 및 자기표현을

목표로 하였다. 이 활동에서는 8분음표로 분할된 선율을 연주함으로써 내면의 정서를 악기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회기에는 도약이 포함된 선율 연주를 통해 맡은 바 음악적 책임을 다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5회기에는 그룹 구성원과 또 하나의 소그룹을 이루어 화음 연주를 함으로써 구성원이 서로의 연주를 지지하고, 하나의 화음으로 동시적 연주를 수행함으로써 자신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다. 6회기에는 3화음에서 확장된 화음 연주를 하여 하나의 곡을 완성해나가는 과정으로, 그룹 구성원과의 협동심을 통해 자긍심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7회기에는 소그룹이 더욱 세분화된 화음 연주를 하도록 하며, 자신의 역할에 따른 책임감이 더 많아져 연주를 통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다. 8회기에는 다양한 화음의 음악적 조화로움을 통해 구성원 간에 이루어지는 확장된 화음 연주를 하도록 하였으며,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향상을 목표로 활동을 진행하였다.

후기단계(9-12회기)인 9회기에는 그룹 구성원과의 선율연주 및 2성부 연주를 구성하여, 자신과 다른 성부가 동시에 연주되는 경험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음악적으로 체험하도록 하였다. 10회기에는 선율연주를 기반으로 2성부와 3성부 앙상블 연주를 수행함으로써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하며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11회기에는 선율부와 반주부를 두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도록 하였으며, 자신이 속한 소그룹과 자신이 속하지 않은 소그룹이 협동적으로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타인을 이해함으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12회기에는 선율, 화음, 2성부 등이 모두 포함된 곡을 연주하며, 음악을 완성하는 타인과의 소통으로 인해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자세한 활동 방법 및 치료적 논거는 <표 III-6>과 같다.

<표 III-6>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 활동 방법 및 치료적 논거

회기	활동 방법	치료적 논거
1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톤차임 합주 활동 소개 • 악기 탐색 및 연주 방법 익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악기를 연주하는 활동은 거부감 없이 참여 하도록 하며, 새로운 악기를 배움으로써 그룹 구성원 들과의 친밀감 및 신뢰감이 형성된다. • 게이름이 가사에 포함된 노래는 톤차임의 순차적인 음정 구성을 익히고 음계 순서에 따라 내담자들이 자 연스럽게 연주하며, 톤차임 합주의 방법을 알 수 있 도록 한다.
2회기	4분음표로 이루어진 곡 안에서 자신이 맡은 하나의 음을 그룹 구성원과 함께 한 음씩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맡은 순서에 따라 연주하는 활동은 차례를 기다리며 그룹 구성원들의 소리를 경청하게 하고 그 룩 안에서 책임감과 소속감을 경험하게 한다. • 순차진행되는 선율의 연주는 내담자들이 선율 진행 에 따라 한 음씩 맡아서 연주함으로써, 구성원들과 함께 곡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 할 수 있다.
3회기	8분음표의 빠른 리듬으로 구성된 선율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때 얻는 성취감은 그룹 내에서의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며 자신의 모습을 탐색할 수 있다. • 4분음표에서 8분음표로 분할된 선율의 리듬은 구성 원들의 연주 참여 기회를 높여주어 능동적인 참여를 유발하며,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내면의 정서를 악 기로 연주하는 경험은 자기 표현력을 향상시킬 수 있 다.
4회기	순차와 도약이 혼합되어 반복적 으로 나오는 곡 의 선율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율이 도약진행으로 구성된 곡의 연주는 순차적으 로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음악적 진행에 집중해 야 하기 때문에 활동 참여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음악 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얻은 성취감은 긍정적 정서를 도모할 수 있다. • 8분음표와 쉼표, 도약으로 구성된 곡의 선율연주는 연주 수행의 난이도가 상승되어 문제해결능력을 기르 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p>5회기</p> <p>전체집단을 소집 단으로 재구성 한 후에 소그룹 으로 나누어 주 요 3화음인 (I, IV,V)연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 내에서 3-4명이 소그룹을 이루어 함께 화음을 연주하는 활동은 소리의 동시적인 조화를 경험하게 하며, 이를 통해 음악적 지지를 경험할 수 있다. • 화음 연주는 타인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동시에 조화를 경험하며, 자신의 연주와 타인의 연주가 동시적으로 연주되므로 혼자 연주했을 때보다 자신감을 얻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p>6회기</p> <p>소그룹으로 나누 어 주요 3화음인 (I,IV,V)에 대 리 화음(ii, vi)이 추가된 화음 연 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의 소그룹으로 집단을 나누어 3명이 하나의 화 음을 맡아서 연주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에 따른 책임 감이 강화되며, 음악과제 수행을 위해 타인의 소리에 귀기울여야 하므로 자기조절능력과 협동심을 향상시 킬 수 있다. • 소그룹 연주를 통하여 그룹 내에서의 타인을 음악 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며 곡의 한 부분을 맡아서 자 신이 집단과 함께 곡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자긍심이 증진될 수 있다.
<p>7회기</p> <p>톤차임을 각각 두 음씩 맡아 3 화음과 7음이 추 가된 7화음 연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화음에 7음이 추가된 7화음은 하나의 화음을 3명 이 아닌 4명이 연주함에 따라 더욱 풍성한 화음을 경 험하고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 자신이 연주하는 음이 다양한 화음 속에 포함되어 여러 화음으로 음악을 연주할 때 내담자가 허용할 수 있는 음악적 화성범위가 확장되고, 이로 인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자아존중감이 향상될 수 있다.
<p>8회기</p> <p>3화음, 7화음, 9 화음 등 확장된 화음을 그룹 구 성원과 함께 연 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율과 화음이 확장된 음악의 연주는 내담자에게 풍부한 화성음악을 제공하고, 다양한 화성적 변화는 감정을 자극하여 음악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심어줄 수 있다(Clark, Baker, & Taylor, 2016). • 3화음, 7화음, 9화음 등 확장된 화음과 협화음, 비 협화음의 진행은 긴장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규 칙적인 화성진행 패턴을 통해 안정감을 주어 긍정적 인 정서를 얻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9회기	7화음, 옥타브, 임시표 등 다양한 음악 요소가 담긴 곡을 2성부로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곡을 완성하는 성공적인 경험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와 확신 등 긍정적 사고의 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타인과 함께 합주를 하는 경험은 협동심과 책임감을 기르며 지시 따르기, 집중하기, 차례 기다리기 등 사회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어(양은정, 2008), 타인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10회기	여러 명이 동시에 2성부 및 3성부 앙상블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율과 화성을 함께 연주함으로써, 여러 사람의 소리를 하나의 소리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구성원과의 음악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도하여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인내심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옥타브 및 화성의 지속적인 움직임이 많은 음악을 2성부로 연주하는 과정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돕는다(김혜정, 양은아, 2013).
11회기	두 개의 소그룹으로 선율부와 반주부를 동시에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그룹 내에서 선율과 반주의 다른 음악 진행은 개인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격려하고 협동하는 마음을 기르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킨다. • 선율부와 반주부가 서로 다른 패턴과 리듬을 연주하나, 소그룹의 상호적인 음악적 교류의 경험을 통하여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12회기	두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선율부와 반주부, 2성부 및 3성부가 포함된 곡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율과 화음을 함께 연주하는 활동은 자신의 역할과 타인의 역할이 함께 이루어져 이에 따른 음악 안에서의 관계적 책임감이 사회적 책임감으로 발전되어 사회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다(김현정, 2013). • 선율, 리듬, 화성 등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활용한 연주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은 구성원 간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며, 타인에 대한 관심과 수용을 통해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의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 활동에서는 가요, 영화음악 주제가, 클래식, 피아노 연주곡 등 청소년에게 친숙한 음악 중에서 선율 진행의 음정이 각 음마다 고르게 배치된 곡들로, 그룹 구성원들이 균등하게 역할을 맡아 동등한 연주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각 회기마다 선율 연주와 화음연주 등(주요 3화음, 대리화음) 연주의 난이도를 조정하였으며, 소그룹에서 대그룹으로 확장되는 활동 구성을 통해 내담자들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주되는 음악의 템포는 톤차임 연주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느린 템포의 음악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음악 및 치료적 논거는 <표 III-7>과 같다.

<표 III-7>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 활동의 사용음악 및 치료적 논거

회기	사용 음악	치료적 논거
1회기	‘도레미 송’ (Richard Rodgers) 다장조(CM) 4/4박자, 19마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레미 송’은 다장조의 기본 음계가 가사에 포함되어 음정이 순차적으로 제시되는 선율의 구조를 가진다. 내담자들은 이를 통해 처음 접하는 악기의 연주방법을 익히고 음악적 진행에 따라 자신의 차례에 자연스럽게 연주를 시작할 수 있다. • 4박자 단위로 제시된 계이름 연주는 강박에 맞춰 진행되어 자신의 역할에 따라 충분히 다음차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구성원과 음악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다.
2회기	‘즐거운 나의집’ (Henry Bishop) 다장조(CM) 4/4박자, 24마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분음표로 이루어진 선율은 내담자들이 균일하게 기본 박자감을 익히고, 자신의 다음 연주 순서를 예측하여 박에 맞춰 연주를 유도할 수 있다. • 두 소절씩 선율이 반복되는 진행은 내담자들에게 친숙함과 안정감을 제공하고, 규칙적인 박으로 이루어진 선율은 내담자들이 동일한 음가로 연주하기에 용이하여 소속감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3회기	<p>‘미뉴에트’ (Sebastian Bach) 사장조(GM) 3/4박자, 32마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분음표로 분할된 리듬의 선율진행은 연주에 대한 내담자들의 책임감을 증가시켜 과제 완성에 기여하게 하고, 내면의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게 되어 가치있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다. • 주제 선율과 리듬 구조가 명확하게 반복되고 대부분의 선율이 순차진행으로 이루어진 곡은 내담자들에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4회기	<p>‘할아버지의 시계’ (미국 민요) 다장조(CM) 4/4박자, 26마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율에서 순차진행과 도약진행이 번갈아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곡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반복의 단점을 보완하여 내담자가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한다. • 상승과 하행이 4마디 단위로 반복되는 선율 구조는 이완을 도모하며, 내담자들이 연주와 동시에 신체 에너지를 활성화시켜 내면에 있던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정서로 전환할 수 있다.
5회기	<p>‘에텔바이스’ (Richard Rodgers) 다장조(CM) 3/4박자, 31마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율은 도약과 순차진행이 번갈아 구성된 반면, 화음진행은 I-IV-V의 화성진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한 마디에 한 번씩 화음이 변화하므로, 강박에 제시되는 연주의 음악적 단서를 통해 완성도 있는 연주를 수행할 수 있다. •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의 선율을 가진 곡과 화성의 규칙적인 반복은 내담자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 그룹 구성원들과 편안한 분위기에서 음악적 지지를 주고 받으며 자연스럽게 자신감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
6회기	<p>‘Moon River’ (Henry Mancini) 다장조(CM) 3/4박자, 38마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박자의 춤곡으로, 선율의 상행진행과 하행진행이 반복적으로 구성된 곡은 몸의 움직임과 감정의 발현을 유도하며, 한 마디에 한 번 바뀌는 화음의 반응을 크게 느낄 수 있다. • 다양한 화음이 포함된 확장된 화성구조의 음악은 내담자가 음악적 완성도를 높여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7회기	<p>‘Over the Rainbow’ (Harold Arlen) 사장조(GM) 4/4박자, 33마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3화음에 7음이 추가된 7화음 진행의 화성 구조는 해결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불협화에서 협화로 진행되면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 • 확장된 화음진행과 7화음 연주를 위해 구성원과 동시에 연주하는 상호적, 음악적인 지지는 내재적 힘을 촉진시키며 자신의 연주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8회기	<p>‘Love me tender’ (Elvis Presley) 사장조(GM) 4/4박자, 20마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조로운 선율과 리듬진행의 반복을 폭넓은 화음의 변화로 뒷받침 해주는 음악적 구조는 음악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경험하도록 하며,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 • 화음의 변화에 따라 난이도가 상승되면서 구성원과 함께 음악을 완성하는 경험은 주도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룹 내에서 자신의 책임감으로 인해 성취감을 제공하는 것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9회기	<p>‘You raise me up’ (Secret Garden) 사장조(GM) 4/4박자, 25마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인 가사의 곡 분위기는 타인과 협동하며 집중할 수 있게 하며 선율의 음역대가 넓어 더 많은 연주를 할 수 있으므로 구성원과 함께 음악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동일한 음가의 리듬으로 진행되는 곡은 균일한 박자감을 느끼도록 하며, 즐겁게 참여할 수 있으며, 타인과 지속적으로 함께 연주하는 경험은 타인을 인식하고 음악적,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10회기	<p>‘사랑의 인사’ (Edward Elgar) 사장조(GM) 2/4박자, 53마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분음표와 8분음표 등의 다양한 리듬으로 이루어진 곡은 음악을 지루하지 않게 해준다. 도약과 순차진행, 임시표가 포함되어 있는 곡을 연주할 때, 구성원과 곡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배려심이 향상될 수 있다. • 2성부에서 3성부로 확장되는 음악적 과제를 수행할 때, 타인과의 동시적 연주를 유도할 수 있으며, 3성부 연주는 구성원과 협력 및 조화를 필요로 하므로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향상시킨다.

11회기	‘사랑으로’ (이주호) 사장조(GM) 4/4박자, 33마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차진행의 안정적인 선율로 이루어진 곡을 구성원이 연주할 때 경험하는 선율과 화음의 조화는 내담자들의 긴장을 해소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심을 향상시킬 수 있다. • 2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연주할 때 선율부와 반주부의 진행은 구성원과 함께 하나의 음악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소그룹 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제공하여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
12회기	‘Canon 변주곡’ (Johann Pachebel) 다장조(CM) 4/4박자, 45마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선율의 변주가 이루어지며 리듬이 분할되는 선율부는 내담자가 음악 안에서 자신의 역할에 따른 책임을 높인다. 선율부분과 화음부분이 서로 주고받는 음악을 구성원들과 함께 완성함을 통해 타인과의 교류를 자연스럽게 제공할 수 있다. • 선율, 리듬, 성부 등 음악적 난이도가 높은 곡을 구성원과 함께 완성하는 과정은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연주에서 경험하는 성취감은 대인관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6.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 나이, 한국 거주기간 등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질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에 대한 Mann-Whitney U 검정(Mann-Whitney U test)을 실시하였다.

셋째,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 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점수의 영향을 통제된 후 사후 점수의 차이를 살펴보

는 순위 공변량분석(Ranked ANCOVA)을 실시하였다.

넷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점수에 대한 변화의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분석으로 Wilcoxon 대응표본 부호순위검정(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s)을 실시하였다.

넷째, 각 척도의 하위요인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여 결과가 유의한지를 알아보았다.

표본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모든 통계적 분석은 비모수 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 이다.

IV. 연구결과

1.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가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연구문제 1)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동질성 검정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를 실시하기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기개념 사전검사 점수에 대한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자아존중감 전체점수와 하위요인 점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이지 않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동질한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자아존중감 사전검사에 대한 동질성 검정

측정치	실험집단	통제집단	U	Z
	평균순위(순위합)	평균순위(순위합)		
자아존중감 전체	10.05(100.5)	10.95(109.50)	45.50	-.34
총체적				
자아존중감	9.20(92.00)	11.80(118.00)	37.00	-1.00
사회적				
자아존중감	9.35(93.50)	11.65(116.50)	38.50	-.88
가정적				
자아존중감	11.25(112.50)	9.75(97.50)	42.50	-.57
학교적				
자아존중감	10.45(104.50)	10.55(105.50)	49.50	-.04

2) 자아존중감 전체

تون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 전체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순위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순위 공변량분석은 두 집단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사전 점수의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 사후점수의 차이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집단 간 동질성이 확보된 경우에 순위 공변량분석을 적용하여도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 간 동질성 여부와 관계없이 각 변인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는 $F=24.20$, $p=.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001$)를 보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2>, <표 IV-3>과 같다.

<표 IV-2> 자아존중감 전체점수 순위 잔차의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실험집단	4.18	4.08	1.29
통제집단	-4.18	3.50	1.11

<표 IV-3> 자아존중감에 대한 순위 공변량분석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집단-간	349.34	1	349.34	24.20***
집단-내	259.82	18	14.43	
합계	609.16	19		

*** $p <.001$

변화의 추이를 보기 위해 각 집단의 사전과 사후에 대한 Wilcoxon 대응 표본 부호순위검정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은 $p=.012$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05$)를 보이며 평균이 증가하였으나, 통제집단은 $p=.725$ 로 유의한 차이($p >.05$)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4>와 같다.

<표 IV-4> 자아존중감에 대한 Wilcoxon 대응표본 부호순위검정

	사전검사	사후검사	Z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실험집단	94.10(15.46)	120.50(11.92)	-2.52*
통제집단	99.60(8.55)	101.00(8.12)	-.35

* $p <.05$

3) 자아존중감 하위요인

تون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점수의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 사후점수의 차이를 알아보는 순위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V-5> 자아존중감 하위요인 순위 잔차의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총체적 자아존중감	실험집단	3.50	4.38	1.39
	통제집단	-3.50	5.14	1.62
사회적 자아존중감	실험집단	3.65	4.69	1.48
	통제집단	-3.65	3.84	1.22

가정적 자아존중감	실험집단	4.36	3.93	1.24
	통제집단	-4.36	3.27	1.03
학교적 자아존중감	실험집단	.02	5.99	1.90
	통제집단	-.02	5.17	1.63

검정결과 총체적 자아존중감($F=10.74, p=.004$)과 사회적 자아존중감($F=14.48, p=.001$)은 유의한 차이($p < .01$)를 보였고, 가정적 자아존중감($F=29.00, p=.000$)은 유의한 차이($p < .001$)를 보였으나, 학교적 자아존중감($F=.00, p=.988$)은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5>, <표 IV-6>과 같다.

<표 IV-6>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에 대한 순위 공변량분석

하위요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총체적 자아존중감	집단-간	244.81	1	244.81	10.74**
	집단-내	410.26	18	22.79	
	합계	655.06	19		
사회적 자아존중감	집단-간	266.11	1	266.11	14.48**
	집단-내	330.69	18	18.37	
	합계	596.80	19		
가정적 자아존중감	집단-간	379.58	1	379.58	29.00***
	집단-내	235.62	18	13.09	
	합계	615.21	19		
학교적 자아존중감	집단-간	.01	1	.01	.00
	집단-내	563.79	18	31.32	
	합계	563.80	19		

** $p < .01$, *** $p < .001$

각 하위요인의 집단별 점수변화의 추이를 보기 위해 각 집단의 사전과 사후에 대한 Wilcoxon 대응표본 부호순위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실험집단은 자아존중감 하위요인 중 총체적 자아존중감($p=.008$)과 사회적 자아존중감($p=.008$), 가정적 자아존중감($p=.005$)이 유의한 차이($p <.01$)를 보였으며, 학교적 자아존중감($p=.041$)도 유의한 차이($p <.05$)를 보이며 평균이 증가하였다. 반면 통제집단은 자아존중감 하위요인 모두(총체적 자아존중감 $p=.331$, 사회적 자아존중감 $p=.919$ 가정적 자아존중감 $p=1.000$, 학교적 자아존중감 $p=.076$) 유의한 차이($p >.05$)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7>과 같다.

<표 IV-7> 자아존중감 하위요인 Wilcoxon 대응표본 부호순위검정

하위요인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Z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총체적 자아존중감	실험집단	17.10(4.25)	24.20(2.78)	-2.67**
	통제집단	20.10(2.96)	19.10(3.48)	-.97
사회적 자아존중감	실험집단	25.30(3.71)	32.40(3.95)	-2.67**
	통제집단	27.10(3.60)	26.90(2.81)	-.10
가정적 자아존중감	실험집단	27.20(4.52)	35.20(2.78)	-2.81**
	통제집단	26.20(4.10)	26.20(4.73)	.00
학교적 자아존중감	실험집단	24.50(5.32)	28.70(4.67)	-2.04*
	통제집단	26.20(3.01)	28.80(4.10)	-1.77

* $p <.05$, ** $p <.01$

2.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가 다문화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연구문제 2)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대인관계에 대한 동질성 검정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를 실시하기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대인관계 사전검사 점수에 대한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대인관계 전체점수와 하위요인 점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이지 않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동질한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표 IV-8>과 같다.

<표 IV-8> 대인관계 사전검사에 대한 동질성 검정

측정치	실험집단	통제집단	U	Z
	평균순위(순위합)	평균순위(순위합)		
대인관계 전체	11.45(114.50)	9.55(95.50)	40.50	-.72
통제지배	10.80(108.00)	10.20(102.00)	47.00	-.23
자기중심성	8.10(81.00)	12.90(129.00)	26.00	-1.83
냉담	12.25(122.50)	8.75(87.50)	32.50	-1.33
사회적 억제	9.75(97.50)	11.25(112.50)	42.50	-5.7
비주장성	9.05(90.50)	11.95(119.50)	35.50	-1.12
과순응성	10.05(100.50)	10.95(109.50)	45.50	-.34
자기희생	11.95(119.50)	9.05(90.50)	35.50	-1.12
과관여	12.35(123.50)	8.65(86.50)	31.5	-1.43

2) 대인관계 전체

تون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대인관계 전체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순위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F=44.87$, $p=.0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01$)를 보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9>, <표 IV-10>과 같다.

<표 IV-9> 대인관계 전체점수 순위 잔차의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실험집단	-3.33	4.65	1.47
통제집단	3.33	4.56	1.44

<표 IV-10> 대인관계에 대한 순위 공변량분석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집단-간	222.2	1	222.02	10.47**
집단-내	381.75	18	21.21	
합계	603.78	19		

** $p <.01$

변화의 추이를 보기 위해 각 집단의 사전과 사후에 대한 Wilcoxon 대응 표본 부호순위검정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은 $p=.008$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01$)를 보이며 평균이 감소하였으나, 통제집단은 $p=.919$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05$).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11>과 같다.

<표 IV-11> 대인관계 Wilcoxon 대응표본 부호순위검정

	사전검사	사후검사	Z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실험집단	129.80(5.55)	109.00(19.49)	-2.67**
통제집단	128.10(6.66)	130.80(17.36)	-.35

** $p < .01$

3) 대인관계 하위요인

تون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점수의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 사후점수의 차이를 알아보는 순위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V-12> 대인관계 하위요인 순위 잔차의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통제지배	실험집단	-1.63	3.25	1.03
	통제집단	1.63	3.88	1.23
자기중심성	실험집단	-2.66	4.29	1.36
	통제집단	2.66	5.67	1.79
냉담	실험집단	-3.87	3.92	1.24
	통제집단	3.87	4.85	1.53
사회적 억제	실험집단	-3.51	4.66	1.47
	통제집단	3.51	4.52	1.43

비주장성	실험집단	-1.64	5.16	1.63
	통제집단	1.64	3.51	1.11
과순응성	실험집단	-.82	6.57	2.08
	통제집단	.82	5.01	1.59
자기희생	실험집단	-.84	5.98	1.89
	통제집단	.84	5.62	1.78
과관여	실험집단	-1.46	6.21	1.96
	통제집단	1.46	4.18	1.32

검정결과 냉담($F=15.43$, $p=.001$), 사회적 억제($F=11.72$, $p=.003$)는 유의한 차이($p < .01$)를 보였으며, 자기중심성($F=5.62$, $p=.029$)은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였다. 반면에 통제지배($F=4.13$, $p=.057$), 비주장성($F=2.76$, $p=.114$), 과순응성($F=.40$, $p=.537$), 자기희생($F=.42$, $p=.526$), 과관여($F=1.52$, $p=.234$)는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12>, <표 IV-13>과 같다.

<표 IV-13> 대인관계 하위요인에 대한 순위 공변량분석

하위요인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통제지배	집단-간	52.86	1	52.86	4.13
	집단-내	230.64	18	12.81	
	합계	283.50	19		
자기중심성	집단-간	141.74	1	141.74	5.62*
	집단-내	454.27	18	25.24	
	합계	596.01	19		

냉담	집단-간	300.23	1	300.23	15.43**
	집단-내	350.20	18	19.46	
	합계	650.43	19		
사회적 억제	집단-간	247.10	1	247.10	11.72**
	집단-내	379.66	18	21.09	
	합계	626.76	19		
비주장성	집단-간	53.89	1	53.89	2.76
	집단-내	351.08	18	19.50	
	합계	404.97	19		
과순응성	집단-간	13.50	1	13.50	.40
	집단-내	614.30	18	34.13	
	합계	627.79	19		
자기희생	집단-간	14.09	1	14.09	.42
	집단-내	606.00	18	33.67	
	합계	620.09	19		
과관여	집단-간	42.46	1	42.46	1.52
	집단-내	503.44	18	27.97	
	합계	545.91	19		

* $p < .05$, ** $p < .01$

각 하위요인의 집단별 점수변화의 추이를 보기 위해 각 집단의 사전과 사후에 대한 Wilcoxon 대응표본 부호순위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실험집단은 대인관계 하위요인 중 자기중심성($p=.020$), 사회적 억제($p=.025$), 비주장성($p=.028$)에서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이며 평균이 감소하였으나, 통제지배($p=.085$), 냉담($p=.085$), 과순응성($p=.064$), 자기희생($p=.288$), 과관여($p=.108$)은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이지 않았다. 통제집단은 대인관계 하

위요인 중 냉담($p=.028$)이 유의한 차이($p <.05$)를 보이며 평균이 증가하였고, 나머지 7개의 하위요인(통제지배 $p=.125$, 자기효능감, $p=.778$, 사회적 억제 $p=.344$, 비주장성 $p=.720$, 과순응성 $p=.152$, 자기희생 $p=.720$, 과관여 $p=.666$)은 모두 유의한 차이($p >.05$)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14>와 같다.

<표 IV-14> 대인관계 하위요인 Wilcoxon 대응표본 부호순위검정

하위요인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Z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통제지배	실험집단	14.70(2.63)	13.10(2.33)	-1.72
	통제집단	14.00(2.36)	15.30(3.86)	-1.54
자기중심성	실험집단	13.60(2.41)	11.40(2.67)	-2.32*
	통제집단	15.80(2.10)	15.40(3.41)	-.28
냉담	실험집단	15.70(4.06)	12.10(3.03)	-1.72
	통제집단	14.20(2.82)	17.50(3.60)	-2.20*
사회적 억제	실험집단	16.10(3.28)	12.50(2.72)	-2.24*
	통제집단	16.80(2.10)	16.10(2.28)	-.95
비주장성	실험집단	16.70(2.83)	13.40(4.48)	-2.20*
	통제집단	17.80(2.04)	17.80(3.61)	-.36
과순응성	실험집단	16.90(1.91)	14.70(3.68)	-1.85
	통제집단	17.30(2.63)	15.70(1.70)	-1.43

자기희생	실험집단	18.40(3.41)	16.50(3.10)	-1.06
	통제집단	16.20(2.97)	16.90(2.88)	-.36
과관여	실험집단	17.70(2.91)	15.30(4.35)	-1.61
	통제집단	16.00(2.11)	16.10(1.60)	-.43

* $p < .05$

V. 결론

1.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에게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를 실시하여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소재한 M 외국인학교 다문화 청소년 20명(실험집단 10명, 통제집단 10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각 회기 당 45분씩 주 2회, 총 12회기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자아존중감(Self-esteem Inventory) 검사, 대인관계(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 검사를 실험 전후에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는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다.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톤차임 합주를 통해 음악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에 따른 책임을 완수함에 따라 자아를 인식하고 성취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즉,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는 그룹 구성원과 합주의 경험을 공유하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확립하여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합주 활동에서 형성된 그룹 응집력이 자기탐색과 개인의 의사 결정 능력을 확립하도록 하며, 음악을 완성하면서 습득되는 자신감과 만족감이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한 Ragland와 Apprey(1974), Haines(1989), Henderson(1983)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에서는 총체적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학교적 자아존중감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 활동이 자아탐색과 긍정적인 정서 확립에 초점을 두어 단기간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다문화 청소년들의 일차적인 과업인 학업 문제 및 학교에서의 선생님과의 관계 개선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를 시행한 실험집단은 학교적 자아존중감 영역에서 사후점수가 사전점수에 비해 증가하였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실시한다면 다문화 청소년들이 학업과 학교 생활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어 보다 유의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는 다문화 청소년의 대인관계 향상에 효과가 있다.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대인관계 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감소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그룹 구성원이 함께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는 과정에서 서로 지지해주며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해주어 다문화 청소년들이 음악 안에서 교류하는 시간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시한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는 다문화 청소년의 대인관계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음악을 통한 그룹 구성원간의 음악적 지지가 관계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O'Grady & McFerran, 2007), 연주 활동이 타인과 감정을 공유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상호작용 능력이 발달되어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Schumacher와 Calvet-Kruppa(1999)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그룹 음악치료 활동이 청소년들의 사회기술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양은정(2008)과 임수경(2014), 이유진(2000)의 연구와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에서는 냉담, 사회적 억제, 자기중심성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대인관계 하위요인 중 통

제지배,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를 통해 그룹 안에서의 음악적 지지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도움을 주어 타인에 대한 거부감과 부정적인 생각을 감소시키는 데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지만, 나아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거나 희생하는 부분까지 개선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추측된다. 그러나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를 시행한 실험집단은 사후점수가 사전점수에 비해 가시적인 차이를 보이며 감소하였기 때문에 대인관계 하위요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 활동을 구성하고 시행하여,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치료적 효과를 규명하고자 실시되었다. 그 결과,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는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향상에 유의한 치료적 도구로 기능하며, 부정적인 자아개념으로 인해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인 심리적 중재 방안임을 밝혔다. 또한 톤차임을 활용한 합주 활동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음악치료의 효과를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가 부족한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론 및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의 M 외국인학교 내 몽골 국적 다문화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작아 이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 참여자의 표집 범위와 크기를 확대하고, 참여자의 연령과 성별, 국적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통찰임을 활용한 음악치료는 12회기로 진행되어 장기적인 효과를 검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단기 활동은 학교의 학사일정을 고려할 때 학기 중 시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는 방학 중 입·출국이 잦은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의 기한으로 적합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학교와의 일정 협의를 통해 장기적인 활동을 구성하고 시행하여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찰임을 활용한 음악치료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동일한 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다문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교에서 진행되는 음악 교육 및 개인적인 음악 경험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후속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음악 수업, 교육 등의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소영 (2000). **중학생의 사회성 측정지위에 따른 대인관계 성향 및 자아존중감의 차이**.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 구향숙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5, 83-112.
- 국가인권위원회 (2010). **이주아동 교육권 현황과 개선방안**.
<http://www.humanrights.go.kr>.
- 권민균, 문혁준, 권희경 (2012). **아동발달**. 서울: 창지사.
- 권석만 (1995). **대학생의 대인관계 부적응에 대한 인지 행동적 설명모형**.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30(1), 38-63.
- 권혁민 (2012). **이주노동자의 지역별 특성과 지역사회 적응**. **현대사회와 다문화**, 2(1), 46-83.
- 김경란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 김경수 (2015).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 김정은 (2014).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성 증진을 위한 태블릿PC 합주 활동 사례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김국현 (2016).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학업성취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근자 (2009). **사물놀이 활동을 통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 향상. **음악교육**, 10, 1-38.
- 김미향 (2005). 청소년의 감각추구 동기와 대중음악 선호와의 관련성 조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7(1), 35-54.
- 김민 (2003). 청소년의 대중스타 수용에 대한 이론적 연구. **청소년행동연구**, 8, 1-28.
- 김민경 (2007). **자일로폰 악기연주 활동이 정인지체 청소년의 주의집중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 대학원.
- 김상락 (2014). **밴드합주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 김상철, 김영숙, 이현림 (2007).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분노 감소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8(4), 1605-1622.
- 김선하 (2009). 리듬악기합주 활동이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1(1), 40-59.
- 김시연 (2016).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시간 및 이용 동기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연이 (2011). **일반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성취도 격차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환, 진유경, 조용래, 권정혜, 홍상황, 박은영 (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391-411.
- 김예성, 오승환 (2016).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교육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8(3), 75-98.
- 김오남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 33-74.
- 김은선 (2010).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적·감정적 자기 표현**

- 력 증진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정옥 (2015). 콜라주 집단미술치료가 중도입국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평택대학교 상담대학원.
- 김정원 (2006). 국내 몽골 출신 외국인 근로자 자녀 학교교육 실태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6, 95-129.
- 김지현 (2006). 치료적 악기연주가 뇌졸중환자의 손 장악력과 기민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음악치료학회지**, 8(1), 54-73.
- 김태희 (2013). Graffiti 협동학습 모형을 적용한 감상 수업이 탈북 청소년의 사회성과 지능 변화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현경 (2011). 기악합주의 효과적인 지도 방안 연구: 교회 청소년 기악합주단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현정 (2013).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혜경 (2000). TV방송음악이 청소년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음악과민족**, 2000(19), 224-266.
- 김혜미, 문혜진 (2013). 다문화 가정 아동 청소년과 비다문화 가정(한국인 부모가정)아동 청소년의 학교적응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5(4), 7-31.
- 김혜정, 양은아 (2013). 기악합주활동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또래 관계 기술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9(4), 75-96.
- 김화성, 유형근, 남순임 (2014). 초등학교 고학년 다문화가정 학생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교원교육**, 30(3),

177-195.

- 김홍주, 박길태 (201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특징: 일
반청소년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9(1), 93-128.
- 김희정, 정다운 (2011). 방과후 자아존중감 프로그램 참여가 저소득층 아동
의 자아존중감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생태유아교육연구**, 10(4),
71-90.
- 남상아, 백지숙 (2011). 다문화 가정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과 초기 청소년
의 학교적응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9(1), 3-12.
- 다누리 (2016). **다문화가족지원법**. <http://liveinkorea.kr>.
- 도윤지 (2010). **새터민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표현예
술치료 프로그램 개발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
학원.
- 모경환, 이재분, 홍종명, 임정수 (2015). 다문화가정 학생 언어교육의 국내외
현황 및 언어교육 강화방안. **다문화교육연구**, 8(3), 197-226.
- 문성실 (2010). **대학생의 유머감각이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에 미치
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민경훈 (2009). 다문화 교육으로서 음악 교육의 필요성과 역할. **예술교육연
구**, 7(1), 93-111.
- 박선희 (2010). **집단미술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 스트레스 완
화와 또래관계 향상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 박수정, 최연실 (2010).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6),
1-18.
- 박은민 (2014).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

- 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대회지**, 2014(2), 107-109.
- 박지영, 문소영 (2016).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통합치료연구**, 8(1), 31-50.
- 박형수, 유진호, 박부연 (2013). 한국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련성.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8(5), 771-777.
- 배은영 (2008). **화음의 종류와 템포의 변화가 정서반응 평가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배장오, 진서현 (2015).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교육성취욕구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2(5), 421-434.
- 백지숙, 김진, 유영하 (2013). 전남지역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인구배경학적 요인, 개인심리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1(4), 157-170.
- 백지숙, 김진, 정효경 (2014). 인구배경학적 요인,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사회적지지가 청소년의 학교적응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2(1), 127-142.
- 서승미 (2005). 청소년의 음악 감상 행동에 관한 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2(2), 1-14.
- 성한나 (2016). **음악극 창작 활동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표현력 및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소수연, 안지영, 양대희, 김경민 (2014). 초기 청소년기의 변화에 대한 부모-자녀의 인식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2(1), 247-279.
- 손미나 (2015).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음악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 송선진 (2007). 국제결혼가정자녀의 사회화 과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송숙경 (2016). 우쿨렐레연주중심 음악치료가 통합어린이집 장애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상호작용 향상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송옥경 (2003). 윌리엄스 증후군 아동의 언어 및 운동 발달에 미치는 음악치료의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주승, 정혜명 (2010). 청소년의 음악적 취향과 인식에 관한 현황 조사 연구: 18세-24세를 중심으로. 한국음악학회논문집, 45, 115-130.
- 신현희 (2015). 청소년의 기악활동을 통한 몰입경험과 안녕감 간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양은정 (2008). 치료적 유율 타악기 합주가 가출 청소년의 사회기술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여성가족부 (2011).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http://mogef.go.kr>.
- 오성배 (2013). 다문화사회 한국의 사회통합. 서울: 이담북스.
- 오영훈, 임한나 (2014). 청소년 수련활동 참여를 통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국립청소년수련원 활동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8(1), 143-172.
- 오정아, 김영희 (2015). 부모의 갈등과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아인식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 남녀 청소년의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6), 205-231
- 왕혜자 (2015). 긍정심리학 기반의 음악치료가 노인의 우울과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 유영경 (2016).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언어 사용능력이 적응유연성 및 문

- 화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유지아 (2016). 타악기 연주 중심의 음악치료가 재한 몽골 중학생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불안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윤다예 (2015). 청소년 국제교류를 통한 음악활동이 글로벌시민의식과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은선경 (2010).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3, 37-74.
- 이경미 (2015). 밴드활동이 중장기쉽터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우울 증세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이경윤 (2012). **다문화시대 문화를 넘어서 그리고 한국**. 서울: 이담북스.
- 이규미, 김명식 (2008). 중학생 학교적응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1), 27-40.
- 이동욱 (2015).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 이미정, 박미숙 (2012). 멘토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멘토링 운영 연구. **다문화교육**, 3, 101-123.
- 이민선, 채규만 (2012).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2(1), 63-75.
- 이상은 (2014). **협동학습이론을 적용한 핸드벨 합주 지도 연구: 중학생을 대상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소희, 이선혜 (2013).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의 정신건강.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4(3), 124-131.
- 이승민 (2015). **치료적 리코더 합주가 보호관찰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 문제해결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 이시아 (2016). 우쿨렐레 연주중심 음악치료가 장애자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이유경, 류재윤, 방홍복 (2012). 부모의 긍정적 진로 관여가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2), 129-154.
- 이유진 (2000). 음악활동이 정인지체청소년의 사회생활 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이인용 (2000). 치매 노인의 음악활동에 대한 선호도 연구: 노래부르기, 악기연주, 동작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철원 (2013).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능력 및 비행예방 프로그램 개발. *교정복지연구*, 31, 59-84.
- 이현숙 (2008). 중학교 특별활동 시간에 이루어지는 관현악 합주의 효과적인 운영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현주 (2007). 외동이의 태도변화를 위한 오스티나토 리듬합주 활동.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이형득 (1995). *인간이해와 교육*.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혜림 (2015).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건강행태비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삼육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 임미소 (2015). 정서행동문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구조화된 가야금 중심의 합주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

- 대학원.
- 임선숙 (2014). **섬유매체를 활용한 집단 미술치료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및 이중문화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 임수경 (2014). **발달장애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그룹 음악치료 프로그램**.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임수경, 이형실 (2007).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9(3), 169-183.
- 임연희 (2012). **기타합주 중심의 음악치료가 비행청소년의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대학원.
- 임영식 (2002). 대중 스타에 대한 청소년의 우상화 현상과 심리사회적 적응. **청소년학연구**, 9(3), 57-78.
- 임한나 (2008). **다문화 청소년의 복지에 대한 욕구분석: 외국인근로자 자녀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 임혜주 (2009). **집단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이 보육 시설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임현정 (2009). **노래심리치료가 내재화된 정서 문제를 갖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증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장은영 (2008). **인지-행동적 음악치료 금연프로그램이 흡연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금연 동기유발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전미향 (1997).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자기존중감과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전수정, 윤혜미 (2013).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방임, 문화변용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4, 153-179.
- 전영희 (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정서·행동문제의 관계. **재활심리연구**, 19(2), 277-293.
- 전윤경 (2014). 악기연주 중심의 음악치료 활동이 중도시각장애인의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 정다운 (2008). 소외계층의 교육기본권 구현을 위한 교육복지 법제 연구: 새터민·외국인 근로자·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삼현 (2015).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가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익중, 박현선, 구인회 (2006). 피학대아동이 비행에 이르는 발달경로. **한국사회복지학**, 58(3), 223-244.
- 정지윤 (2011).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정진희, 정규진, 최애나 (2015). 톤차임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의 주의집중력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1(4), 218-233.
- 정태미 (2010). 음악치료 활동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사회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대학원.
- 정하성, 유진이, 이장현 (2007). **다문화청소년이해론**. 파주: 양서원.
- 정현주 (2015).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제 2판).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 조경원 (2008). 보건의료 직업윤리 및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10), 224-233.

- 조민구, 최진이 (2013). 대인관계중심 레크리에이션 참여가 다문화청소년의 활동역량증진에 미치는 효과성 검증. **청소년학연구**, 20(8), 325-346.
- 조충연 (2007). **합창음악교육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학교생활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현상 (2009). **한국 다문화주의의 특징과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주빛나 (2014). **악기연주 중심 음악치료가 시설보호아동의 또래 유대감 증진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주정 (2011). 다문화가정 청소년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복지행정논총**, 21(2), 81-99.
- 지혜미 (2009). 학교 음악수업에서 대중음악의 영향과 적용방안 연구. **청소년 문화포럼**, 22, 210-242.
- 채유경 (2004).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2(2), 136-144.
- 천정훈 (2005). **부산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실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방글라데시 베트남 노동자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최미숙 (2003). **대중음악의 선호도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최병철, 황은영 (2011). 록큰롤 음악 청취와 청소년의 내재된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3(3), 1-12.
- 최보가, 전귀연 (1993).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1). **대한가정학회지**, 31(2), 41-54.

- 최애나 (2012). 노래 중심 음악치료가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8(4), 1-19.
- 최유진 (2015). 인지행동 음악치료가 내재화된 정서 문제를 가진 초등학생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진영 (2015).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표현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 추유리, 강지예 (2014). 집단모래상자놀이가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18(1), 57-71.
- 통계청 (2016). 외국인 근로자 고용조사 결과. <http://kostat.go.kr>.
- 통계청 (2016). 국적별/성별/연령별 체류 외국인 수. <http://kostat.go.kr>.
- 통계청 (2016). 청소년 통계. <http://kostat.go.kr>.
- 행정자치부 (2015). 외국인 주민 통계.
<http://moi.go.kr/frt/a01/frtMain.do>.
- 홍소정 (2015). 우쿨렐레 연주 중심 집단 음악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황성동, 박은혜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및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6(4), 123-145.
- 황은영 (2012). 청소년 대상 그룹 음악치료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음악치료교육연구*, 9(2), 1-17.
- 황재섭 (2011).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무용 참여를 통한 문화적응력 및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Aigen, K. (2009). Verticality and containment in song and improvisation:

- An applicaion of schema theory to Nordoff-Robbins music therapy. *Journal of Music Therapy*, 46(3), 238-267.
- Baumeister, R. F., Dori, G. A., & Hastings, S. (1998). Belongingness and temporal bracketing in personal accounts of changes in self-esteem.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2(2), 222-235.
- Borrayo, E. A., & Guarnaccia, C. A. (2000). Differences in Mexican-born and US-born women of Mexican descent regarding factors related to breast cancer screening behaviors.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21(7), 599-613.
- Boxill, E. H. (1985). *Music Therapy Developmentally Disabled*. Rockville, MD: Aspen Systems.
- Branden, N. (1987). *How to raise your self-esteem*. NY: Bantam Books.
- Brown, J. D., & Mankowski, T. A. (1993). Self-esteem, mood, and self-evaluation: changes in mood and the way you see you.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3), 421.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ry Park, CA: Sage.
- Burns, D. S. (2001). The effeect of bonny method of guided imagery and music on the mood and life quality of cancer patients. *Journal of Music Therapy*, 38(1), 51-65.
- Bruscia, K. E. (2000). The nature of meaning in music therapy. *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 9(2), 84-96.
- Castro, V. S. (2003). *Acculturation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Clark, I. N., Baker, F. A., & Taylor, N. F. (2016). Older Adults' Music Listening Preferences to Support Physical Activity Following Cardiac Rehabilitation. *Journal of Music Therapy, 53*(4), 364-397.
- Compas, B. E., Conner-Smith, J. K., Saltzman, H., Thomas, A. H., & Wadsworth, M. E. (2001).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roblems, progress, and potential in theory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27*(1), 87-127.
- Coopersmith, S. R.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Coopersmith, S. R. (1981). *Coopersmith Self-esteem inventories: SEI*.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George, R. L., & Dustin, E. R. (1988). *Group counseling: Theory and Practice*. New Jersey: Prentice Hall.
- Goldberg, A. D., & Chandler, T. J. (1989). The Role of Athletics. The Social World of High School Adolescents. *Youth and Society, 21*(2), 238-251.
- Gooding, L. F. (2011). The Effect of a Music Therapy Social Skills Training Program on Improving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Social Skills Deficits. *Journal of Music Therapy, 48*(4), 440-462.
- Haines, J. H. (1989). The effects of music therapy on the self-esteem of emotionally-disturbed adolescents. *Music Therapy, 8*(1), 78-91.
- Harter, S. (1993). Causes and consequences of low Self-esteem in

- children and adolescents. In R. F. Baumeister (Ed.), *Self-esteem: The puzzle of low self-regard* (pp. 87-116). New York: Plenum Press.
- Henderson, S. M. (1983). Effects of a music therapy program upon awareness of mood in music, group cohesion, and self-esteem among hospitalized adolescent patients. *Journal of Music Therapy*, 20(1), 14-20.
- Hibben, J. K. (1984). Movement as Musical Expression in a Music Therapy Setting. *Music Therapy*, 4(1), 91-98.
- Heider, J. E. (1964). *Molding apparatus*. Washington, DC: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 Horowitz, L. M., Rosenberg, S. E., Baer, B. A., Ureno, G., & Villasenor, V. S.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6), 885-892.
- Kaufman, G., Raphael, L., & Espeland, P. (1999). *Stick up for yourself Every kid's guide to personal power & positive self-esteem*. Minneapolis. MN: Free Spirit.
- Kim, Y. C. (2016). The Influence of Middle-school Students Self-esteem and Social Relationship on their Multicultural Acceptance-Centered in Mediation Effect of Sense of Community.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Letters*, 131, 158-161.
- Laiho, S. (2004). The psychological functions of music in adolescence. *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 13(1), 47-63.
- McFerran, K. (2010). Tipping the scales: A substantive theory on the

- value of group music therapy for supporting grieving teenagers. *Qualitative Inquiries in Music Therapy*, 5, 1-42.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elpigno, M., & Collins, M. E. (2003). Infusing youth development principles in child welfare practice: Use of a Delphi survey to inform training. *Child and Youth Care Forum*, 32(3), 159-173.
- Moreno, J. (1988). Multicultural music therapy: The world music connection. *Journal of Music Therapy*, 25(1), 17-27.
- O'Grady, L., & Mcfferan, K. (2007). Community music therapy and its relationship to community music: Where does it end?. *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 16(1), 14-26.
- Parker, J. S., & Benson, M. J. (2005). Parent-adolescent relations and adolescent functioning: Self-esteem, substance abuse, and delinquency. *Family Therapy*, 32(3), 131-142.
- Radocy, R. E., & Boyle, J. D. (1997). Functional applications of music in contemporary life. In R. E. Radocy, & D. Boyle,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Musical Behavior* (pp. 31-64).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Publishers.
- Ragland, Z., & Apprey, M. (1974). Community music therapy with adolescent. *Journal of Music Therapy*, 11(3), 147-155.
- Reasoner, R. (1982). *Building self-esteem: A Comprehensive Program*.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Rosenberg, M., Schooler, C., & Schoenbach, C. (1989). Self-esteem and

- adolescent problems: Modeling reciproca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6), 1004-1018.
- Saarikallio, S., & Erkkilä, J. (2007). The role of music in adolescents mood regulation. *Psychology of Music*, 35(1), 88-109.
- Schumacher, K., & Calvet-Kruppa, C. (1999). The AOR- an Analysis System to Evaluate the Quality of Relationship during Music Therapy: Evalu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rough the use of instruments in music therapy with profoundly developmentally delayed patients. *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 8(2), 188-191.
- Sears, W. W. (1968). *Processes in music therapy*. New York: Macmillan.
- Tervo, J. (2001). Music Therapy for adolescents. *Clinical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6(1), 79-91.
- Tice, D. M. (1991). Esteem protection or enhancement Self-handicapping motives and attributions differ by trait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5), 711-725.
- Turry, A. (2007). *The connection between words and music in music therapy improvisation: An examination of a therapist's metho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w York.
- Viega, M., & Baker, F. A. (2016). What's in a song? combining analytical and arts-based analysis for songs created by songwriters with neurodisabilities. *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 1-21.
- Yalom, I. D., & Leszcz, M. (2008). 최신 집단정신치료의 이론과 실제 5판. 장성숙, 최해림 (역). 서울: 하나의학사. (원저 2005 출판).
- Yun, J. (2014). Juvenile Offenders Experience of Music Therapy within the Framework of Self-determination: A Modified Grounded Theory

Study.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1(1), 63-82.

ABSTRACT

The Effect of Music Therapy Using Tone Chimes on the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Hong, Min-Ju
Department of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music therapy using Tone Chimes o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selected in M foreign school in Seoul. Of 20 participants, 10 were randomly assigned into an experimental group and 10 to a control group.

Music therapy session using Tone Chimes was conducted twice a week, a total of 12 times. The music therapy session with Tone Chimes, which includes playing melody, harmony, 2 parts, and 3 parts ensemble, was organized and operated based on using music that is familiar to adolescents from pop music, to Original Sound Track and classic music.

In order to measure the effect of music therapy using Tone Chimes, pre- and post- tests were taken. The SPSS 20.0 program was utilized for data analysis of the results of following tests: Frequency, Mann-Whitney U, Ranked ANCOVA, and 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s.

The resul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f the music

therapy with Tone Chimes on improving both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some subcategories of self-esteem, specifically in Overall, Social, and Family self-esteem, and also in some subcategories of interpersonal relation, specifically in Coolness, Social control, and Self-centeredness.

This study proved the importance of organizing and operating music therapy with Ton Chimes based on rhythm, melody, and harmony, to multicultural adolescents for improving their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 Moreover, it also indicated that music therapy with Tone Chimes is an effective treatment method with high adaptability to a school setting for improving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